

“도교육청, 내년 교부금 감액”

교육부,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경기·강원과 함께 교육감들 반발로 실제 감액 교부시 갈등 예상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10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 편성 분만큼 감액 교부하기로 해 갈등이 예고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 강경 입장을 밝

힌 바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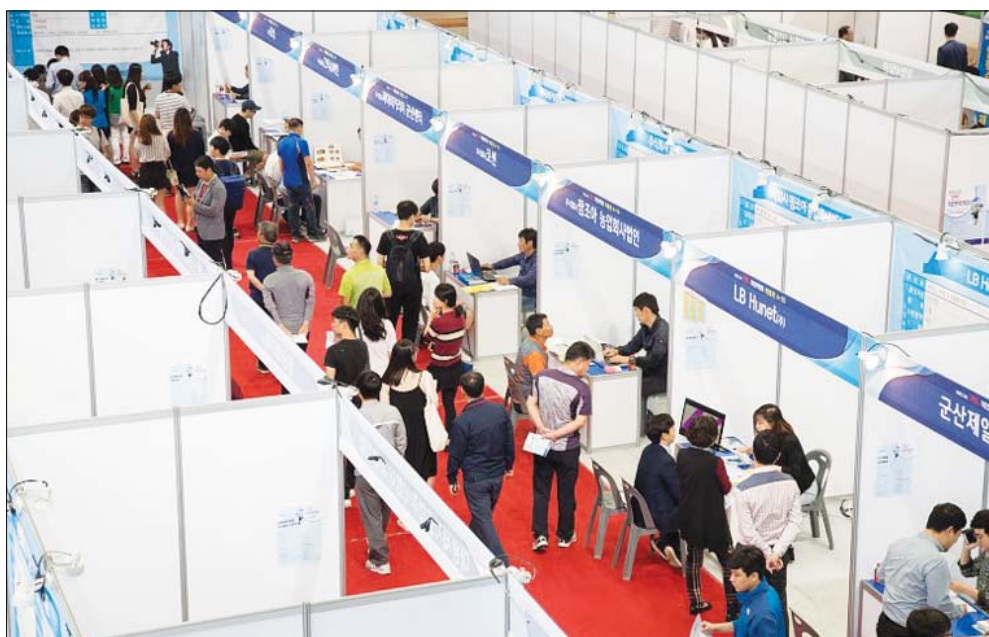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과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월 예정된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원래 교부예정인 금액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813억원을, 강원교육청에는 528억원, 경기교육청에는 5,459억원을 뺀 금액이 교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개 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감액 교부가 이뤄질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뺐으로 확정된 보통교부금 1,007억원은 내년과 내후년에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분명히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 같은 교부금 감액 경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인다. /고민형 기자



취업 열기가 뜨겁다 22일 군산대학교에서 '2016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 박람회에는 3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졸업예정 학생 및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취업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했다.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도·행정자치부, 망향의동산서 안치식 거행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동원 된 도내 한인 희생자를 위한 유골봉환 안치식이 진행됐다.

22일 전북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립망향의동산(충남 천안)에서 정부 인사 및 유족 등과 함께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안치식을 이날 거행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19일 사할린 유골 발굴을 시작으로 21일 국외추도식을 진행한 후 국내로 모셔와 22일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 동원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할린 한인 희생자의 유골 11위가 한·러 정부간 합의에 따라 수습하여 진행된 것이다.

한인희생자 관련 유골 11위 중 4위가 전북을 본적지로 하고 있으며 경남 3위, 경북 2위, 충남·전남이 각 1위가 본적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추진된 한·러 실무협

결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을 진행, 현재까지 32위를 봉환한데 이어 이번에 거행된 유골봉환까지 총 43위의 유골을 안치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숨진 한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며, 현재도 먼 이국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의 유골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3당합의 안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

‘취임 100일’ 정세균 의장 김재수 해임건의안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의 표결 일정과 관련,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임건의안 상정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금주 내에 어떻게 표결할 생각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우선은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3당이 합의를 해주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나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제 개입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낱말이 밝히는 것이 바른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리든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이든 후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의혹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이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국민적인 관심으로 때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르 의혹의 후폭풍을 전망했다. /뉴스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타임머신 타고 근대로

대학가요제·모던 패션쇼 등 새롭게 선보여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는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가 4회째를 맞아 더욱 새롭게 태어난다.

이번 축제는 3.5만세 페어리드 행렬을 축으로 어린이 마칭밴드, 근대양꼬리 동춘 서커스 등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Forever 대학가요제, 모던걸·모던보이 패션쇼, 번사와 함께하는 타임슬립GOGO장 등 근대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Forever 대학가요제는 70~80년대 대한민국의 포크송을 널리 대중화시킨 통기타 가수 남궁옥분과 실력 있는 대학생 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져 가을밤의 정취가 물씬 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간 프로그램은 체류형 방문

객을 유인하고자 야간조명을 축제장과 그 일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표관광지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근대관광10선'의 10개 명소를 안내하는 야간 경관조형물과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전통가게를 선정해 안내관을 설치하는 등 축제가 끝나도 한 번 더, 하루 더 군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내실 있는 축제 준비뿐만 아니라 군산 관광의 비전을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를 방문해 시간여행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더민주 최고위, 27일 전북에서 열려

추미애 대표, 쌀값 폭락 항의 현장 목소리 청취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최고위원회 개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공약에 따른 것.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를 방문,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춘진 더민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추 대표는 농민단체, 농민,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5년간 수돗물 누수

도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최근 5년동안 수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면 ‘삼성 새만금 투자 증인 출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여부와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고재근(Y2K)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출연진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